"여기 동자 쿠폰인데요, 염주 주머니 주세요"

화성 신흥사, 신도들 위한 '성불장터' 열어

신흥사 성불장터에 참가한 신도들이 쿠폰으로 물건을 사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50여종 불교상품 마련 장학금 · 지원금도 전달

"항상 깨끗한 정장차림에 당당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고교 2년생인 김진솔(18) 양은 끝내 편지를 읽지 못했다. 아버지를 향한 편지는 이내 눈물로 얼룩졌다. 법당에 모인 500여 신도들과 청년회, 학생회원들이 진솔이를 격려하기 위해 박수와 함께 함성을 질렀다.

증권회사에 다니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진솔이는 편지를 제대로 읽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아버지에게 전했다고 생각했는지 표정이 밝다.

10월 16일 정오 경기도 화성 신흥사(주지 성일).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신흥사의 '성불장터'는 자식과 부모가 마음을 나누는 편지 읽기로 시작됐다.

성불장터가 열리기 전에 열린 식전 법회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사찰 측에서는 편지쓰기 외에 학생회 회원들과 지도간사에게 장학금을, 학생회를 잘 뒷바라지한 학부모와 자모교사들에게 지원금을 주며 격려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성불장터. 법당 옆에 마련된 성불장터에는 사찰 측에서 마련한 50여 종류의 물건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학용품에서부터, 주부들을 위한 주방용품, 칫솔과 비누 같은 생필품, 단주와 차걸이 같은 불교용품 등.

성불장터 개장식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이 끝나고 학생 풍물패의 공연과 어린이회의 율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불장터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저마다 동자승이 그려진 쿠폰을 몇 장씩 내놓고 물건과 바꾸느라 정신이 없다. 이 쿠폰은 법회 참석 때마다 한장씩 받은 것이다.

손은향 보살(38 · 부천 원미구)은 딸에게 주겠다며 염주주머니를 골랐다. 법회에 몇 차례 빠졌다는 손 보살은 "다음부터는 법회에 빠지지 말아야겠네요. 더 많이 사려면요"하면서 웃는다.

성불장터가 열리는 동안 주변에 쳐진 천막에서는 먹거리가 잔치가 계속됐고 가족단위로 자리를 틀고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신도들이 많다. 신도회장인 전재근(65 · 前 서울대 교수)씨도 아내와 아들 내외, 딸 내외, 손자들까지 모두 9명의 가족들이 성불장터에 왔다. 가족들 모두가 신흥사 신도다. 신흥사에는 이렇게 가족단위로 신행생활을 하는 불자들이 상당히 많다.

신흥사에는 이렇게 늘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 신도들에게 절에 오는 재미를 붙여주고, 또 그 속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 그래서 우란분절에는 효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 신도들에게 특별선물을 드리고, 칠석법회 때는 '좋은 부부인연상'을 선정해 시상을 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그 이유를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매력 있는 사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절에 오면 무엇인가 얻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신적인 것은 물론이고, 흥미를 느끼며 보람을 얻을 수 있어야만 열의가 생깁니다. 절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화성 신흥사=한명우 기자

"대화 통한 상호이해 · 존중"

한국 종교간 대화학회 27일 창립, 공동대표 대성 스님

문화 · 학문 등 교류 예정

종교간 대화를 통해 상호이해와 존중, 공동발전을 기원하는 '한국종교간 대화학회(이하 종교간 대화)'가 10월 27일 전남대 국제회의동(용봉홀)에서 창립된다.

종교학자와 종교인, 일반시민 등 9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종교간 대화는 대성 스님(부산 범어사 주지), 황승룡 목사(전 호남신학대 총장), 박일영 교수(가톨릭대), 김영태 교수(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장)가 공동대표를 맡아 종교간의 문화예술과 학문적 연구 및 교류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종교간 대화는 이날 창립총회와 함께 '종교간 대화의 이념과 방향'이란 주제의 기념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기조발표는 서강대 교수 서명원 신부(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가 하며 동국대 윤영해 교수(불교와 기독교의 대화), 강남대 이찬수 교수(종교간 비교와 종교간 대화)가 주제발표를 한다.(062)530-3910

이준엽 기자

생명 · 나눔의 축제 열린다

강화 전등사 28일부터 '삼랑성 문화축제' 개최

황우석 박사 초청 강연

강화 전등사(주지 장윤)는 10월 28일부터 3일간 '생명의 빛, 나눔의 기쁨'을 주제로 한 2005삼랑성 문화축제를 연다.

10월 28일 재불화가 방혜자씨의 그림전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10월 29일 '내안의 빛-소리여행'으로 계속된다. 특히 '내안의 빛-소리여행'에서는 전등사 신도로 널리 알려진 서울대 석좌교수 황우석 박사가 '나의 생명 평화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하며, 해금 연주자 정수년, 오카리나 연주자 한태주, 남인도 전통 음악 '카르나타카'를 들려줄 상기따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마지막날에는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나눔의 장'이 펼쳐진다.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황우석 박사, 박원순 아름다운 가게 상임이사, 전등사 스님들이 내놓은 기증품과 전등사 신도회가 직접 담근 강화 순무 김치와 소금 등이 판매된다. (032)937-0125 유철주 기자

해남 미황사 수륙천도재 봉행

괘불재, 산사음악회 펼쳐

해남 땅끝에 자리한 아름다운 절 미황사(주지 금강)가 지난 10월 15일 괘불을 펼치고 야단법석을 열었다(사진).

올해로 4회째 맞는 괘불재에는 지역주민, 관광객, 신도 등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일지암주 여연 스님의 고불문,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의 법어, 만법공양 순으로 진행됐다.

만법 공양에는 참가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재미있게 읽은 책, 콩, 호박, 향기나는 찹쌀, 태중 아기사진, 헌혈증 등 만물을 공양올리고 수륙 천도재를 봉행했다.

괘불재에 이어 6회째 맞는 산사음악회에는 박남준 시인의 시낭송과 판소리, 진도아리랑, 찬불가 등이 펼쳐졌다.

이준엽 기자

광주 원각사, 가을음악회

국악과 양악의 만남이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사찰에서 이뤄졌다.

송광사 광주 포교당 원각사(주지 도제)는 지난 10월 14~15일 대웅전 앞 뜰에 특설무대를 마련하고 '가을 음악회'를 개최했다.

광주 충장로 축제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14일 '퓨전음악과 추억의 올드팝, 그리고 재즈가 함께하는 7080 라이브 콘서트'를 시작으로 15일 '국악과 양악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류상호, 주권기씨 등 통기타 가수와 원각 국악단 등 지역에서 활동중인 음악인이 대거 출연했다.

음악회가 열리는 동안 무대밖에서는 도원 이창호(선.다화 연구소장)씨가 시민들과 함께 '달마도'를 그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음악회에 앞서 원각사 주지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회색 시멘트 건물 사이에 자리한 원각사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양식의 사찰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찰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걷기명상 · 108배 등 체험

지리산생명평화결사가 10월 15~16일 대구 북구 신천변 체육공원과 관오사(주지 지도)에서 2005생명평화대회를 개최했다(사진).

15일 오후 2시부터 신천변 체육공원에서 개최한 생명평화대회는 퍼포먼스와 함께하는 걷기 명상을 시작으로 참회와 성찰의 108배, 생명과 평화의 발원을 담은 현수막을 연과 함께 날리는 순서로 진행됐고, 공연, 발언, 고백 시낭송 등으로 이어지는 생명평화 난장이 열렸다.

체육공원 주변에는 광주탁발순례 환영 시화전, 솟대 나무목걸이 전시, 여순사건 시와 그림전 등의 전시 문화마당과 생명평화 판화체험, 흙공예, 나무공예 등 다양한 체험마당이 펼쳐졌다. 밤 10시부터는 남구 관오사에 준비된 스승, 선배와의 대화방, 묵상방, 고백의 방, 성찰의방, 시인과의 대화방, 교사들의 방에서 대화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16일은 생명평화결사운동을 위한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화백회의와 관오사에서 두류공원 솟대광장까지 이어지는 걷기명상의 시간이 이어졌다.

배지선 기자

경북장애인종합예술제 성황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은 10월 20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1000여명의 장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장애인들의 문화 축제인 '제4회 경상북도장애인종합예술제'를 개최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경북지역의 장애인들에게 문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적 재능을 개발하고 자립과 재활의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9월 16일부터 모집한 문예, 그림, 서예, 공예 등 4개 부문 200여 작품 중 우수 입상작이 전시됐고, 지역별 장애인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배지선 기자

잔반 '벌금' 인도 어린이돕기에

여주 돌격부대 빈그릇운동

정토회 에코붓다(대표 유정길)가 펼치고 있는 빈그릇운동이 해외 지원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어 화제다. 10월 1일부터 빈그릇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 돌격부대(부대장 김지환) 장병들은 잔반을 남길 때마다 끼니당 150원의 '벌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 돈은 10월 한달간 모아져 인도 어린이 건강지원기금으로 전달된다.

돌격부대는 빈그릇운동 외에도 부대원들의 자발적인 금연운동과 장기기증운동으로 '환경'과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돌격부대장 김지환 대령은 "그동안 자율 배식을 통해 잔반을 줄여왔지만, 빈그릇운동이 환경과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굶주리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으로 동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평화기원 등 대청호반 수놓아

옥천사암련, 유등축제 막 내려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희망의 빛을 담은 등이 장계국민관광단지 대청호반을 수놓았다.

옥천지역 사암과 불교단체들이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한 '세계평화 희망의 빛 등(燈) 축제'가 유등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축제기간동안 선보인 등은 대형등 100여점, 중형등 200여점, 소형등 3000여점 등. 육영수여사등, 만사형통등, 부귀문등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등도 첫 선을 보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전통등과 불자들의 보시금으로 마련한 소망등 1만개도 대청호를 수놓아 이목을 끌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